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법적 과제

(국내 해상풍력 및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 2024년 10월 29일 10:00 - 12:30

주최: KIM&CHANG 법률사무소, 대한상공회의소

세션 1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약, 인허가, 공사수행의 주요 법적 리스크

발표1)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약 구조 및 주요 이슈 : Ryan Russell 외국변호사

발표2) 국내 해상풍력 regulation 관련 주요 이슈 : 박준환 변호사

발표3) 국내 해상풍력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 박설 변호사

토론) 권지안 상무, 박혜민 변호사

세션 2

발표1)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계약 구조 및 주의할 점 : 정다운 외국변호사

발표2)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 김도영 변호사

토론) 허준 파트장, 김성환 변호사, 노현식 변호사

Executive Summary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및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라는 신사업 기회를 가지게 되며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법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음 본 행사에서는 그중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관한 법적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함.

key takeaway 1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약, 인허가, 공사수행의 주요 법적 리스크

- 국내 해상풍력 규제 관련 주요 이슈로는 계통포화로 인한 발전사업 허가 보류 이슈,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 이슈, 공유수면점용사용료 산정 관련 이슈, 외국인의 지질조사 허용 이슈, 카보타지(Cabotage) 이슈 등이 있음.
- 국내에서는 분리발주(Multi-Contract)형태의 해상풍력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다수의 시공사가 참여하는 해외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건설계약에서는 지연 및 책임 분배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공사의 리스크 배분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및 관련 문건을 사전 협상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임

key takeaway 2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관련 주요 법적 리스크

-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환경적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 분쟁의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음. 예방 및 분쟁 발생시 해결이 성공적 개발의 핵심.
- 사업구조를 통한 리스크 헷징, 투자협정, 계약조항을 통한 리스크 관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계약 당사자간 책임 배분 및 제한, 전략적인 분쟁해결 조항 작성이 중요함.

Ryan Russell 외국변호사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약, 인허가, 공사수행의 주요 법적 리스크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약 구조 및 주요 이슈)

초기단계의 해상풍력 개발 단계에서는 규모와 계약금이 작더라도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MOU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어떤 조건과 권리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함. 지분 판매나 자금 조달 등에서 작은 계약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 외국 시장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영문으로 계약서 쓰는 것도 추천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복잡성 등의 이유로 역사적으로 분리발주(Multi-Contract)를 해왔음. 그러나 Multi-Contract는 계약이 많기 때문에 EPC계약 전략 과 비교하면 리스크가 큼. EPC wrap의 장점은 분쟁 발생 전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러나 개발사의 전문성과 더 많은 인력 필요. 위험성 완화를 위해 경력, 경험, 전문성이 요구됨. 개발사의 직접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하며, 계약마다 개발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에 대해 관리가 필요함.

박준환 변호사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약, 인허가, 공사수행의 주요 법적 리스크

(국내 해상풍력 법안 관련 주요 이슈)

이해관계자로는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의 주체인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과 그외 인허가 주체가 있음. 기타 이해관계자로는 어민, 통항자, 사업자단체가 있음.

① 계통포화로 인한 발전사업 허가 보류 이슈: 2020년 법개정 이후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새로 등장함. 2031년까지 전남 지역을 전력계통 접속 제한 조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 내려지지 않음.

②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 이슈: 과거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거의 허가됐으나 2022.1에 개정되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음. 재량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계기로 동의를 받아오길 요구하는 사례들 발생

③ 공유수면점용사용료 산정 관련 이슈: 토지가격의 100분의 3 징수하도록 되어있음.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이 조항에 따르면 수십 km 떨어진 최근접지의 가격으로 책정되거나, 우연히 도시지역인 경우 매우 큰 사용료가 산정되기도 함

④ 외국인의 지질조사 허용 이슈: 외국인에 관해 매우 엄격한 요건. 한국 법인이라도 주주가 외국인이면 외국인으로 해당되어 해당 조항에 걸림.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외부 조사업체가 할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외국인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 문제가 됨. 내수에 관해서는 조항이 없으나 사실상 금지된다고 해석되고 있음.

⑤ 카보타지이슈: 선박법의 규제를 따름. 외국선박을 금지했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함. 해운법 규제의 경우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경우 등록 규정이 있으나,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의 필요성과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음.

박설 변호사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약, 인허가, 공사수행의 주요 법적 리스크

(국내 해상풍력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 단계별 리스크 중 프로젝트 계약 단계의 리스크

: Multi-Contract에서 여러 시공사의 관리문제 및 지연 발생시 분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시공사는 어떤 리스크를 배분받았으며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지 상세히 확인해야 함.

-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계약 해외 분쟁 사례

사례(1) 기반공사 계약에 관한 문제: 시공사가 계약에 제공되는 제품이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례. 프로젝트 완공 후 수리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문제. 당사자간 합의 기준에 따라 설계 시공했다라도, 시공사 책임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함. 협상 단계에서 계약서 꼼꼼히 확인 필요함. 계약 문건 외 다른 문건들이 포함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contractor가 계약서 면밀히 살펴봐야 함.

사례(2) 시공사가 많은 경우: 동시 업무로 인한 지연사유 발생. 계약기간연장(Extension of Time·EOT)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함. 사례는 시공사가 EOT 청구한 경우로, 영국법원은 EOT 조항이 명확하므로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concurrent delay(동시발생 공기지연)에 대해서도 EOT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3) 시공사 다수일 경우: 다른 contractor로 인해 발생한 non-concurrent delay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의 효력은 있는지에 대한 사례.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패널티가 될 경우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함.

권지안 상무, 박혜민 변호사, 사회 조은아 외국변호사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약, 인허가, 공사수행의 주요 법적 리스크

(토론)

Q. (사회) 현장에서 체감하는 계약관련 이슈는 무엇인가?

A. (권지안) 현재 한국의 계약은 분리발주 (Multi-Contract)이나, 미래에는 한국의 full EPC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Interface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음. 발주자 혹은 개발자 입장에서, 피해발생시 연쇄반응이 있으며, 계약상 현실적 문제가 있음. 개발사 발주자의 경험과 책임감 필요하며, 계약서 작성이 중요함.

Q. (사회) 분쟁 발생 시 중재는 어떻게해야 하는가?

A. (박설) 분쟁상황을 미리 염두해두어야 함. 분쟁 협상 조항을 미리 산정하고, 한 번에 모아서 분쟁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 중재 조항에 joinder, consolidation 조항을 넣는 것 추천함.

Q. (사회) 현업과 로펌이 풍력사업을 수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가?

A. (박혜민) 복잡한 인허가, 계통 문제 이외에도 주민수용성에 어려움이 큼.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법적 관리자의 동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받아야 하나, 현행 법상 동의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허가권자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어려움이 있음. 누구와 어떠한 도구로 협의해야하는지가 어려운 문제임.

Q. (사회) 위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A. (박준환) 의견수렴 절차의 강화 추세는 맞으나 세부사항이 규정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음. 초기부터 관의 입장은 어떤 지 확인하고 시작해야 함. 금전보상은 당연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민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됨.

Q. 해상풍력의 고유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 ground risk가 매우 큼. 사업 초기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받는 게 너무 힘들. 초기 지질조사 완벽하게 하기에 너무 많은 제한사항이 있음. 수행 단계에서 계약적 이슈가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예측 못한 논리가 큰 클레임으로 연결되기도 함. 입찰 시에 시공사들과 리스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함.

정다운 외국변호사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관련 주요 법적 리스크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계약 구조 및 주의할 점)

계약사간, 당사자간 적절한 리스크 분배가 중요함. 최소한의 리스크만 안고 최대한 리스크를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넘기는 것이 리스크 분배의 궁극적인 목표임.

PF 계약서는 모두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한 가지의 사유가 여러 계약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함. completion support는 건설리스크 최소화, 예상 기간 내에 완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함. 추가 보호장치는 프로젝트에 대한 확실성 제공함. 자금조달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대주단의 컨트롤 최소화시키는 등의 협상카드가 될 수 있음. completion(재무적 완공)의 정의가 중요함. 대주단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협상카드로 활용 가능함. 사업주는 신뢰할 수 있는 계약자와 협상하는 것이 중요함.

김도영 변호사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관련 주요 법적 리스크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중요성 커지고 있음. 환경적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 분쟁의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음. 예방 및 분쟁 발생시 해결이 성공적 개발의 핵심임. 불안요소로는 한정된 자원, 트렌드 변화, 자연재해/재난 등, 국제정세 불안, 패권경쟁, 자원민족주의 등이 있음.

-정치적 환경적 리스크

(정치) 사업자 자산을 국영화 또는 몰수하는 경우 발생. 각국에서 입법 규제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조세제도 변경 및 수출입제한이나 운영제한, 재협상 강제 등)

(환경/ESG 리스크) 기후변화, 기상악화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사회적 담론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및 갈등(주민수용성 등), 환경, 보건, 안전 규제 강화, 환경 및 허가 당국의 전문성, 경험 및 신뢰 부족, 사법적 적극주의와 사법부가 제시한 사회적 및 환경적 기준의 소급적 부과

-최근 리스크 사례

(1) 볼리비아: 리튬이 전략자원으로 지정되어 국가 통제하에 수행하도록 함. 국영 기업인 YLB 설립함. 반미/친중.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계약 체결함.

(2) 멕시코: 정부가 리튬 공급 국유화, 광업법 개정을 통해 리튬을 공공 유용성의 국가자원으로 선언. 2023.9 중국 회사가 진행하던 9개의 리튬 프로젝트를 취소한 바 있음. 각국의 변동을 주시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예방 및 대응 방안

사업구조를 통한 리스크 헷징: 투자처 및 리스크의 분산, 정치적 리스크나 기상악화에 대한 보험 등 제도의 이용, 투자협정 적절히 이용

계약조항을 통한 리스크 관리: 명확하게, 이행가능수준으로 계약.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필요. 계약 당사자간 책임 배분 및 제한, 전략적인 분쟁해결 조항 작성 필요.

분쟁해결을 통한 리스크 대응 및 권리 구제: 협력사에 대한 중재 또는 소송 제기, 정부기관에 대한 중재 제기(투자 협정에 근거한 중재를 제기하는 것이 도움됨)

-분쟁해결조항의 작성과 활용

DAAB나 Expert Determination: 중재/소송 전 선결절차. 분쟁재정위원회나 전문가 판단에 회부.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적이고 중립적 판단, 유연하고 덜 공격적인 분쟁해결 가능성이 있음. But 추가적인 분쟁해결 단계로 인한 복잡성 및 추가적 법리적 쟁점 발생 리스크 있음.

다단계 분쟁해결조항: 고위임원 미팅 > 추가적 조정이나 협상 절차 > 최종 소심이나 중재단계로 나아가도록 구성하는 것이 통상적.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효과 명시하는 것이 중요.

현지 정부에 대한 중재 제기: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 고려하는 것도 도움.

허준 파트너, 김성환 변호사, 노현식 변호사, 사회 이철원 변호사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관련 주요 법적 리스크

(토론)

Q.(사회) 해외 자원개발 계약에서 최소수량약정(Minimum Quantity·MOQ)조항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A.(노현식) 최근 빈번한 분쟁 유형 중 하나가 해외에서 원자재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 최소수량 약정 조항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임. MOQ 달성을 못할 경우 일종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사례임. 계약 관련 리스크의 분배 문제의 일부임. MOQ 조항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는 미래 수요나 공급현황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함. 수요나 공급의 변동을 이유로 계약의 내용을 바꾸기도 어려움. 바이어 입장에서는 계약체결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 계약적 장치로는 크게 불가항력 조항을 넓은 범위의 상황을 캡처할 수 있도록 작성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당사자들이 MOQ 약정 물량을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는 것이 있음. 당사자들의 다툼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공식을 계약서에 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분쟁이 생긴 이후에는 뭐라도 주장할 근거가 되는 것이라서 넣는 것이 좋음.

Q.(사회) 정부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A.(허준) 사업이 잘 될 경우 발생이익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 이익을 가져가려는 시도가 종종 발생함. 해당 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사업에 대한 불법적인 수용 조치를 취한 경우 발생.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사업자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음. 리스크헷징이 중요할 것이며 계약 조항에 사업자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서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분쟁 발생시 최소한의 안전 확보 가능. 정권의 성향이나 광업에 대한 국가의 태도, 환경과 연계된 광업 제도 등 정성적 평가 필요.

Q.(사회) 바로사 가스전 사업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법적리스크는 무엇인가?

A.(김성환) 호주의 해상 가스전에서 가스 액화하는 프로젝트로, SK E&S는 37.5% 지분 획득 후 2021년에 최종투자결정(FID)을 선언함. 이후 현지단체와 현지 주민들로부터의 7-8건의 법적 소송이 발생함. 제일 큰 이슈는 2022 호주 현지 원주민들이 파이프라인 공사로 인한 무형문화유산(무지개뱀, 악어인간 등 미신적)의 훼손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걸었던 것임. 여러 국가에서 FOI(freedom of inform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개발 행위로 인해 영향받는 주민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정부기관에 보여줄 의무가 있음. 또한 인허가 기관 이외에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 실제로 양국 대사관, 산업부, 환경부, 현지 미디어 등에게

활발히 어필한 것도 도움이 되었음. ESG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영향력 있음. 주민수용성과 ESG 리스크를 사업초기부터 상세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함.

조사 및 작성

임팩트온 정수정 RA

sj5e7egb@gmail.com